

김영록, 목포시 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전남 서남권 중심 오미크론 빠르게 확산
영암 등 4개 시군 맞춤형 핀셋방역 시행
'시민 긴급 멈춤 운동' ...모임 자제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목포시청 상황실을 방문,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에선 최근 코로나 주간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7.1명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 1주일간 목포에서만 하루 평균 60명이 발생하고, 이중 오미크론 변이가 7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감염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많아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목포·영암·무안·나주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험요인별 맞춤형 핀셋방역'을 시행한다.

'전 시민 긴급 멈춤 운동'을 통해 목포·영암·무안·나주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방학을 맞아 출입이 늘어난 PC방, 오락실은 현재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에 더해 추가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지켜야 한다.

전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면 임시폐쇄하고, 어린이 긴급돌봄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종사자의 외부인간접자제, 타지역방문 학부모의 선제검사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체육시설 등은 목포시, 경찰과 함께 주말마다 특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미크론 변이의 서남권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과 검체인력을 목포시에 긴급 지원하고,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150병상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오미크론은 감염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가족·지인간 전파가 많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도 만남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4일 목포시 부주동 행정복지센터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길용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목포시청 상황실을 방문,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이용섭 "실종자 수색·구조 최우선"

이용섭 광주지사는 16일 "수색·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5명을 구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17일부터는 저층부에 대한 수색과 함께 건물 고층부에 대한 수색과 구조작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지만 145m의 타워크레인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건축물 추가 붕괴와 적치물 낙하 우려가 매우 커서 구조대원 투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전국적으로 건축물 안전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진단과 자문을 받아 수색구조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번 사고현장이유례없는 고난도의 수색·구조기술을 요하는 붕괴현장인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

방법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5명의 실종자들을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며 "중앙부처와 관계 전문가 등에 이 분야 전문가 및 최첨단 장비 지원을 적극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

도,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500억 투입

684건 선정...시설·운영자금 연 1% 저금리 지원

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대상 684건을 선정해 저금리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다. 농지·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공장 신·증축 등 시설자금을 비롯해 포장 디자인 및 용기 개발, 종묘·종패·종자 및 농어업 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을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지원해 농어업인·법인의 소득증대에 보탬을 준다.

지원 규모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 원이다.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 원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1월부터 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사업완공확인서를,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아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인 농협은 행과 수협은행은 대출 요건과 서류 심사 후 용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사업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용자금이 필요한 농어업·법인에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500억 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시, 수어교육원 설치·운영

광주시는 농민(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수어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수어교육원은 광산구 운남동 소재 '광산구농아인센터' 내에 마련되며, 사업비 1억5,1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3월부터 다양한 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어보급, 수어인구 저변 확대, 농문화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어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전문 교육과정으로 나뉘며 일반과정에서는 농민과 수어에 대한 이해, 수어문법, 수어대화를 통한 표현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용을 교육하며, 각 과정별로 ▲기초반 ▲중급반 ▲회화반 ▲고급반을 운영한다.

올해 운영을 통해 실수요를 파악한 후 확대 필요시 교육과정을 추가 신설한다는 계획이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은 목표로 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용자지원 확대

코로나19 영향...식품진흥기금 금리 1% 인하

전남도가 코로나19로 기존 시설개선 희망 업소에서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까지 용자지원을 확대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대상 용자사업'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용자 금리는 2%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고, 시설개선자금만 융자할 수 있어 영업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 감소 등 업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

을 위해 지난해 용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종업원 고용 인건비, 영업장 임대료 등 운영자금까지 지원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용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다.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용자

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 4억 원 등이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3,000만 원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업소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용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용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자영업자가 늘어 용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시, 오미크론 차단 '현장 신속대응팀' 운영

광주시는 최근 지역사회에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현장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시설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이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라 따라 지난 14일부터 '코로나19 현장 신속대응팀'을 꾸려 즉각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새롭게 꾸려진 '현장 신속대응팀'은 시와 구청, 감염병관리지원단, 감염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5개 분야 5개팀 25명으로 구성됐다.

신속대응팀 구성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학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별 실무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장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 집단감

염 상황 발생 시 팀별로 현장에 신속 출동해 기초·심층 역학조사, 환자분류, 동선 분리 등 초기 대응하고 현장 감염요인을 차단하게 된다.

이용섭 광주지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상황이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와 구청, 감염병관리지원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총출동하고 면밀한 초기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명령된 고위험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이행기간 동안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선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노,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씹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